

## 제6, 7차 실과,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서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연구

김 선 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석사)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본 연구는 실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과,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남녀 역할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제4차 및 5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 분석 결과를 참고로 제6차 및 7차 교육과정의 실과,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내재해 있는가를 파악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양성성 교수자료 및 교과서 집필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실현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온 교육내용에서의 평등을 추구한 제6,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가 성편견과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육내용 또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 총 33권이 선정되었으며 구조화된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분석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 인물현황을 분석을 통해 숫자화 된 남녀등장인물의 출현 비율은 제6, 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가 제4, 5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등장인물의 활동이나 역할을 시사 받을 수 있는 등장인물의 출현장소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가정에서 특히 의류나 식품과 관련한 단원에서의 출현 비율이 높았던 반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전보다 비교적 장소에 따라 고른 출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사진이나 삽화의 등장인물 중 여성비율을 보면 남자에 비해 직업활동 묘사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교육개혁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교과서의 성형평성을 제고하여 현 시점에서의 대안과 차후 개정에서 양성평등한 교육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내용의 제고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기술과 가정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 문제다. 앞으로 방학을 이용한 연수를 통해서라도 편견 교사제나 순환 교사제의 도입 등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양성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각 단계마다 여성교육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